

농축수산물 할인지원(700억), 온누리상품권 환급(1.4조) 등 물가·민생안정에 1.5조원 추경안 편성

- 배추·무 등 4.17~4.23일간 할인지원, 무 직수입 5월말까지 4천톤 집중 공급
- 대중성 어종 6종 비축물량 5천톤 공급, 고등어 등 4.30~5.18일간 최대 50% 할인
- 소비 증가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신규 추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가 실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18(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해 ①물가·민생안정 관련 추경사업 추진계획, ②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③농축수산물·가공식품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 기재부(주재),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김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이나,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금번 추경안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700억원), 온누리 상품권 환급(1.4조원) 등 1.5조원 규모의 물가·민생안정 관련 사업을 담아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도 주요 품목 가격 변동성 확대시, 추경안에 반영된 할인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선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산물은 가격이 높은 배추·무 등 채소류 할인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무는 직수입 물량 4천톤을 봄무 출하 전(5월말)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가격 상승세인 계란도 현장조사를 통해 산지 가격, 유통구조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가격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4.17~4.23일) 배추, 무, 양배추, 당근, 열무, 얼갈이

수산물은 4월 금어기 수급 안정을 위해 4.15일부터 대중성 어종 6개 품목* 비축물량 약 5천톤을 시중에 공급하는 한편, 4.30~5.18일간 전국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고등어·갈치·김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4.15~6.27일)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조기, 마른멸치

아울러,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월 카드소비액의 20%를 익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1.37조원)’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설 기간(1.10~2.10일), 3월 동행축제 기간(3.17~3.28일)에 이어 추가로 시행(645억원)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임혜영 (044-215-2770) 사무관 연정은 (jeY0903@korea.kr)
	경제정책국 물가구조팀	책임자 담당자	팀 장 최정빈 (044-215-2931) 사무관 가순봉 (07mmuser@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담당자	과 장 김재형 (044-201-1311) 사무관 박찬우 (parkcw1@mail.go.kr)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책임자 담당자	과 장 배민식 (044-201-2681) 서기관 김성만 (bomipapa@mail.go.kr)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서기관 김수정 (sjcrystal@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서정언 (044-204-7890) 사무관 이준영 (coreajy@korea.kr)

